

## 2020년 9월 20일 “아브라함 이야기(3) 약속의 땅과 믿음의 삶”(창 13:8-18)

성경에서 새 시대를 열어준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믿었으며,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 줌으로써 믿음의 본이 됨을 조명합니다.

### [1] 배려와 양보의 아이콘

지난 주 이집트에서 바로가 굴복하는 반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또한 아브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급 전환 시켜 주셨음에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가운데 가나안으로 복귀한 아브람은 목축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물이 부족하여 조카 롯과의 현실적인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주저없이 롯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실천한 것입니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친절, 배려, 양보 같은 성품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적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속 사람 중에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명랑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친절, 배려, 양보를 잘 하는 사람이 믿는 것과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참내용을 모르고, 믿음의 교리를 앞세우려는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친절과 배려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왜 중요한 성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2]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땅

자기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평야에 살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꾸준함과 부지런함과 인내를 길러야 합니다, 산악지대에 살면 사냥과 채집에 필요한 민첩성과 고도의 체력과 기술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적 시각에서 볼 때, 같은 땅에 살지라도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면 다른 삶의 성품과 방식을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방식을 택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서 사는 사람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세속적으로 살았다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응당 세속적 가치가 높은 물을 찾았겠지만, 아브람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한 가운데 물을 우선시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배려와 양보의 성품을 추구했습니다. 물보다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람의 성품은 싸움과 분열없이 하나님 나라와 자신과 롯을 위한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와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14-17절(읽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팔복,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일이 구약에서 아브람에게 선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교리적으로만 주장하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아브람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가치를 얻게 하였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더 나아가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사는 법을 나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울한 성향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함에 머물지라도 부정적 성향과 배타적 인격까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전 13:6-7** ‘...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삶을 긍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고자 두드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품과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유업의 가치를 살려내는 믿음의 핵심을 아브람을 통해 보시며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람의 룯에 대한 양보는 무엇을 근거로 생긴 태도일까요?
2. 나는 친절과 배려와 양보, 더 나아가 긍정의 태도와 시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길러가야 할 중요한 성품임을 믿습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